

준비 부족·증인 불출석 ‘맹탕 국감’

오늘 상임위별 감사 사실상 마무리 자료제출 거부·대형 이슈 실종도 한몫

지난 4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세 번째 국정감사가 22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이한 대형 이슈가 없었는데다 감사를 준비하는 의원 측이나 피감기관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미미한 ‘맹탕 국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 맹공을 퍼부어야 할 제1야당 민주당이 국감 직전 치러진 전당대회 탓에 국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해 갈날이 무더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증인 불출석 문제와 자료제출 거부 등이 부실 국감의 원인이 됐다. ‘박연자 게이트’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무총리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외교통상부 인사 비리의 유명환 전 장관과 전윤철 감사원장, 신한 사태의 리용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권력형 인사비리 의혹의 여운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했다.

청와대 MBC인사 개입 의혹의 김우중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임로비 의혹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의혹의

이승한 삼성테스코 회장도 증인으로 선정됐지만 모두 불참, 맥빠진 국감을 만들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감사가 열릴 예정이던 지난 4일 정부위원회의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합의로 신청된 증인 9명 중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 기관의 행태도 되풀이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포진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의 검찰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의 김두성 원내대표가 요구한 110건의 자료 중 6건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요구한 223건의 자료 중 12건만이 제출됐다. 더욱이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등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피감 기관의 준비 부족도 부실 국감의 원인이 됐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영화진흥위원회 국감에서는 조희문 영진위원장

이 인사말 자료로 예전 임시국회 때의 책자를 그대로 배포하는 사태가 벌어져 19일 재국감이 실시됐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방송 장악 논란’ 등에 대해서는 뜨거운 공방전을 주고 받았다. 또 낙지 파문이 정치권을 휩쓸면서 행안위, 보건복지위, 농식품위 등에서 낙지가 핫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국감 막바지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제청의 바주기 세무조사와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이 불거져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모두 발언하는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들 “강시장 식전·열정 대단... 자부심 느낀다”

광주시 국감 스케치... ‘새로운 토론문화 정착된 감사’ 평가

광주시 국정감사가 열린 20일 오전 광주시장 3층 회의실.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시청간부들 그리고 행안위 감사 2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입주의 여지도 없이 들었던 감사장은 예년 감사 때와는 달리 시종 차분한 분위기로 일관했다. 2시간30여 분 동안 감사가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큰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장내 열기는 뜨거웠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 강 시장은 11명의 감사위원을 상대로 주축 들지 않고, 논리와 숫

자를 근거로 해명과 설득을 이어갔다. 부드러운 어투에 간간히 유머를 섞었지만, 강 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선 강단진 모습을 보였다.

이윤석의원(민주당,무안·신안)이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무슨 답변을 기다리시는 거냐”며 웃음을 유도한 뒤 “오히려 무안공항을 물류중심 화물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지방재정난, 민자도로 운영, 5·18민주화운동 보상 등 국감장에서

제기된 각종 이슈에 대해서는 실무진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수치를 열거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반론을 펼쳤다. 감사위원들의 잘못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지적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유치 실적이 부풀려졌거나, 광주시 공무원이 광주은행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다.

국감장이 ‘토론의 장’으로 변한 듯한 느낌이었다. 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강 시장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의원’ ‘많은 업적을 남긴 의

원이자 장관’이라며 존경의 뜻을 표시,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감사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광주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쉽게 국감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강 시장의) 업무에 대한 식견과 문제를 해결하는 경륜,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국감에서 진면목을 보게 됐다. 이런 시장과 함께 일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시장과 공직자가 서로 믿고 열심히 일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국감 인물

“MB정부 기업농중심 정책으로 농민 삶 악화”

민주당 김호석 의원

김호석 민주당 의원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에서 ‘정책통’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농촌 현실에 근간한 문제 제기와 해법 제시로 생산적 국감의 표상을 보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농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경쟁 지상주의, 기업농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농가 부채가 급증하는 등 농민의 삶이 오히려 악화되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해법으로 무차별 경쟁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연대와 협동을 통한 새로운 농촌의 길과 미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수산식품부는 쌀 문제와 관련, 김 의원이 제시한 MMA의 무수입 중단 검토 방안, 대북 쌀 지원 확대 등 7가지 해법’에 대해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정책 협의를 요청해왔다.

산림청 국감에서 김 의원은 전국적인 열풍이 불고 있는 ‘치유의 숲’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정비와 지도원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 시의적절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농협과 농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배추값 폭등 사태 등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협 등에서 산지 유통

을 장악하는 한편 농민이 중심이 된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민회와 농업경영인회, 농협 조합장과 3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5권의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국정감사의 모범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 관계자는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농정철학의 한계를 꿰뚫고 있는 것은 물론 농촌 현실을 바탕으로 한 문제 제기와 해법 제시로 호평을 받았다”며 “특히, 국감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세는 동료 의원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농수산위 오늘 낙지요리 오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의원)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중 오찬으로 ‘낙지요리시식회’를 갖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소위 ‘낙지 머리 카드뮴 잔류’ 발언으로 촉발된 파문을 잡식하기 위해 감사위원과 국회출입기자들과 함께 시식회를 하기로 했다”며 “국내산 낙지는 싱싱하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하니 국민이 안심하고 많이 드셔도 좋다는 점을 확인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식약청과 서울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관련 기관들이 합동으로 하루빨리 ‘낙지 머리 카드뮴 잔류 인체 무해성’을 종합 검증하여 발표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낙지를 먹고, 낙지 어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선수촌 국가대표美 쇠고기 1톤 먹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입 쇠고기를 전혀 먹지 않으면서 산하 기관인 태릉선수촌의 국가대표들은 최근 2년 동안 1575kg의 미국 쇠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태릉선수촌 구내 식당 미국산 쇠고기 소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소비량은 총 2톤(1905kg)에 달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는 총 1575kg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8년 태릉선수촌 구내식당의 미국산 쇠고기 구매량은 170kg으로 전년도 70kg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고, 2009년도에는 970kg로 전년도에 비해 5배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지원 발언 진실 공방 확산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평화 해방군’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표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

사에서 “면담요록 등을 확인한 결과, 시진핑 부주석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표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도 아닌 내용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중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수차례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라며 “(청와대가) 어떻게 외교부 보고만 믿고 있는데 별다른 달리들여 봐봐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임동욱기자 tuim@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1. 꿈꾸는 공주처럼 아름답다.
2. 피부가 보드럽고 매끄럽다.
3. 내 여자 같이 오래~오래
4.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하다.
5. 성별의 실리가 예방된다.
6.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
7. 원앙이신/해의마선/독신자생활사에

※ 사은품 80,000원 상당 증정 ※

주문량 폭주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1100-3108 안향연 생로병사 불로장생 책을 드립니다.

02-2068-4142 010-6306-7070
02-2068-4143 010-3611-8272

전남·북서군 지시모집
www.party-food.co.kr

홈페이지 한글주소
파티외식산업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 회갑, 칠순·팔순잔치, 병원개원식
-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 개업식·기념식

★시의·시내 출장전문
★체육대회·야유회
★식탁·의자 무료지원
★연회장 주치장 완비

파티외식산업

상담전화 : 광주본사 226-0085~7

- 목포지사 (061)284-1115
- 순천지사 (061)723-6003
- 전북 전주지사 (063)277-0083

2009~2010년 S대를 12명 합격시킨 일곡 국민학원, 봉선 국민영재학원이 아심차게 펼치는

중3 대상 고1예비 특별반 4개월과정-강사진 8명이 수업 (고등학교 입학 후 최우등생으로)

※ 개강 11월3일 각 학원 1개반 모집 (영·수·텟·후수강 결정) 마감 → 개개원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언어	수학	영어	과학	국사
최복수 (서경대 대학원)	강동구 (동국대 대학원)	주석진 (전. 양영학원 서울대)	신경찬 (전. 양영학원 서울대)	배철훈 (전. 대광고)
정성환 (연세대 대학원)	박현철 (전. 일동학원)	조도현 (전. 대광고)	문승훈 (전. 양영학원 서울대)	
국민학원	이강영 (전. 서울정신학원)	최상원 (전. 대광고)		
국립민원	이강영 (전. 서울정신학원)	최상원 (전. 대광고)		
국립민원	이강영 (전. 서울정신학원)	최상원 (전. 대광고)		

최상원 (전. 대광고) 최상원 (전. 대광고) 최상원 (전. 대광고)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6:00~7:30	수	학	수	학	수	학	4:30~6:00
7:30~9:00	영	어	영	어	영	어	6:00~7:30

수업시수	시수	주별 수업 시수	월별 수업 시수	비고
영 어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수능영어 + TEPS	
수 학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10-가,나 + 수 I + 수 II	
언 어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고등논술 + 수능문학 + 비문학	
과학 / 국사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공통과학 / 국사	

일곡동 국민학원 574-0101 일곡 롯데슈퍼 옆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672-0483 봉선 마트 옆